



나무 그늘에서 담소 나누는 어르신들 폭염날씨가 이어진 3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 민속마을 어르신들이 팽나무 그늘에서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혁만기자

19~39세 2000명 대상 ‘청년의 삶’ 조사

도, 오는 30일까지 현장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0일까지 ‘2025 제주 청년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실태 조사다. 청년의 삶 전반을 양적·질적으로 진단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2000명을 표본으로 정해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벌인다. 조사 항목은 주거, 가족, 노동, 교육, 건강, 문화·여가, 삶의 질 등 12개 부문 71개다. 이는

2022년 10개 부문 46개 항목에서 확대된 것으로 주거비 마련 방법, 청년 1인 가구 지원 필요성, 취업·이직 경험, 구직 활동의 어려움, 청년 정책 인지도와 정책 수요 등 정책 수립과 직결되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청년 정책 관계 부서와 연구기관 등에 공유돼 청년 주거 안정, 고용 환경 개선, 건강 증진, 문화·여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이를 토대로 청년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 등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도민 ‘기후 변화 불안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제주여가원 ‘제주도민 삶의 질’ 브리프 발간
학교 교육 효과 긍정적 인식 전국 평균 이하
야간 보행 안전도 인식 남녀 격차 31%p 넘어

제주도민들의 ‘기후 변화 불안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민 삶의 질 인식과 정책 시사점’ 브리프(연구책임자 고지영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가운데 8개 영역 13개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경험과 성별 격차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최근 연도인 2023~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의 가족관계 만족도(66.2%), 주관적 건강평가(54.7%)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38.7%로 전국 평균(38.4%)보다 소폭 높았다. 학교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2.3%로 전국 평균(44.6%)보다 낮았고 17개 시도 중 14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남성은 전국 평균(43.5%)보다 3.2%p 낮아 여성(-0.9%p)에 비해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더 컸다. 소비 생활 만족도는 전국 평균

(21.2%)보다 낮은 18.9%로 집계됐다. 광역 시도 중 하위권으로 남성의 만족도(16.1%)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가 생활 충분도는 57.6%로 전국 평균(63.4%)에 못 미쳤다. 남성(60.4%)에 비해 여성(54.9%)의 여가 시간 충분도 비율이 낮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 인식은 56.4%로 전국 평균(53.2%)을 상회했다. 제주 여성의 불안도는 세종,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제주 남성의 불안도는 광주, 전북, 강원,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 순위에 올랐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제주도민은 28.8%로 전국 평균(28.9%)과 비슷했다. 전국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

%대 후반으로 낮은 편이며 제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야간 보행 안전도는 69.8%로 전국 평균(69.6%)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남성 85.6%, 여성 53.8%로 성별 격차가 전국 평균(29.0%p)보다 컸다. 연구진은 정책 시사점에서 “제주 지역의 경우 교육비 부담, 일자리와 소득 만족도, 여가 시간 충분도, 기후 변화 불안 등 많은 지표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며 “집단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질 제고, 남성의 일 경험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연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성인지적 조사 분석, 안전한 제주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15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6~7일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15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이 오는 6일과 7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도내 중·고등학생 108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운영진과 대사단으로 나뉘어 국제연합(UN) 회의 절차를 직접 체험, 국제 현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운영진은 사무국(총괄 기획 운영), 의장단(위원회 진행), 기자단(기사 작성), 행사지원인력(운영 지원)으로 행사 전반을 지원한다. 대사단은 국제 현안 토의와 결의안 도출을 맡는다.

이번 모의유엔에서 마약범죄사무소, 세계무역기구, 유엔환경계획, 경제사회이사회의 등 위원회는 각각 ▷국제적 마약 문제 대응 방안 ▷지속가능한 세계 무역 체제 구축 위한 범세계적 논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세계 오염 해결 방안 ▷사이버범죄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김재현기자

“수업·학생 지도 전념”... 교사 행정부담 경감

제주도교육청, 학교업무 경감 개선 방안 추진
학교일지 폐지·공문서 양적 감축 질적 개선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정통신문 발송·공문서 개선, 사업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업무 경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332명이 총 518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감·교사·행정실장·교육공무직·교원단체·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자문단’을 꾸려 시급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28건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중 14건은 반영, 4건은 일부 반영, 5건은 검토 과제, 5건은 반영 불가로 결정됐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문서 양적 감축 및 질적 개선, 사업 통합, 연

수 운영 방식 개선,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 19건의 업무 개선 과제와 학교일지 폐지, 근무상황부 출력률 보관 생략, 교구·장학자료 관리대장 폐지 등 9건의 비치 장부 폐지·간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문서 개선팀을 운영해 공문게시제 및 공문표시제를 개선하며, 가정통신문은 유지원 및 분교장도 별도 발송 가능하게 했다. 또 2026 제주교육 수립시 부서별 세부추진사업을 검토해 사업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교육관리대장과 장학자료 관리대장은 폐지한다.

반면, 업무표준안 제작이나 비교과 교사의 최소 수업시수 운영 기준 마련 등 학교 상황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사안 5건은 이번 개선안에서는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과제를 현장에 적용해 “2026 교육

활동 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는 과제 발굴과 시범 운영 협조, 현장 적용과 평가를 지원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눈 행위는 만·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만·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하라베니(궁천번이지),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요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콘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안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골, 유라조생, 레몬.

신품종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골(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골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